

책의 발간사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여성환경연대가 여성 환경운동의 전국적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출범한지 5년이 되어 오는 이때에 여성 환경운동의 이론적·실천적 지형을 넓히기 위한 담론확산의 장으로 그리고 젠더관점의 환경운동실천 및 환경현안대응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될 <여성 녹색세상을 말하다> 무크지 창간준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지난 5년간의 발자취도 되돌아보며 자기 성찰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혹은 10년간의 여성 환경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일궈낼 터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창간준비호는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특집기사인 '한국 여성 환경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부분과 지역풀뿌리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에서 이슈나 쟁점이 되는 사례들을 싣는 '삶의 터전을 일구는 여성들'이라는 부분으로 만들어진다. 예측하건대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물과 함께 환경운동에 복무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활동한 현장경험과 고충 그리고 성과물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보면 이 책은 활동가들이 이론과 전문성을 갖추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실천모델들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기대가 크다.

세계는 지금 지구환경의 위기는 물론 우리의 삶의 조건이 날로 악화일로에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과환경회의'를 비롯해서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 그리고 2002년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모든 분야가 탐색되었다. 문제는 그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지혜는 각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풀뿌리 활동가들의 실천과정에서 축적한 실질적 경험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

여성환경연대(가) 학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정립과 여성 환경운동을 포함하는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성 환경인들이 탁상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일궈낸 성과물이다.

이번 창간준비호에 이어 2005년 창간호로 발간할 예정인 무크지는 여성 환경인들의 현장경험을 진솔하게 펼쳐냄으로써 물리적인 제약으로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전문성 강화와 지도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나 포럼 등에 참가하지 못했던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자리에서 논의되고 발굴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진 학계나 연구기관에게도 좋은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여성, 녹색세상을 말하다>의 발간을 계기로 여성환경연대가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전진하게 될 것을 크게 기뻐하며 책의 내용을 알차게 하여준 필자들, 책을 펴내기까지 헌신한 실무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환경운동계에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